

주택대출 이자상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내달 7일 발표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기나

일몰 연장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현행 15% 유지
면세 한도 400달러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 검토

앞으로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2년간 일몰이 연장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현행 15%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고액 자산층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다음 달 7일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와 가계 소득 증진이 라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경기에 도움을 주는 확장적 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몰이 돌아온 비교세·감면 조항의 종료도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

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기재부는 또 올해 일몰이 돌아온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공제율 15%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공제율을 조정하지 않고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서 국회가 반대하자 조정하지 못했다.

20세 이상 모든 국민이 1천만원까지 분리 과세 혜택을 받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돌아오는 일몰을 연장하는 대신 재산·소득 기준을 도입해 고액 자산층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달러에 묶여 있는 면세 한도를 600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국회에는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재부는 면세한도 조정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지만 인상 여부와 수치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역외소득 무신고 가산세도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40%로 선진국의 75~100%보다 훨씬 낮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고용과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내리고 고용 증가에 비례하는 추가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사업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4%를 세액공제 해주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최대 3%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공제율을 내리고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기존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R&D 비용 세액공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되지만 세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최경환 경제팀’ 정책 기대감 당분간 상승 랠리 지속 예상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발표와 함께 코스피지수는 2030선 돌파에 성공하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최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펀드 판매액으로 취약한 기관투자자의 투자여력과 여전히 부진한 2분기 기업실적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FOMC회의를 앞둔 광명심리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겨낸 의미 있는 상승세다.

먼저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의 안정성장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는 경제지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전일 발표된 7월 HSBC제조업 지수가 전월은 물론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며 18개월래 최고치로 올라 섰다. 정부의 지속적인 미니부양책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가 안정성장 궤도에 진입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며, 지난주 발표된 2·4분기 성장률과 함께 향후 경기흐름 역시 양호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의 성장을 둔화 우려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8월 우리나라 금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지수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분간 상승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승추세의 예상과 함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최근 주식시장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이다.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 주택시장 과열억제 조치 완화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경제정책 발표 중 주식시장에서 한 가지 눈에 띄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배당에 대한 부분이다. 기업배당을 촉진하고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해소하는 등 배당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펀드평가사에 따르면 월 들어 배당주 펀드에는 3770억원이 순유입됐다.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에서 4조 4654억원이 환매되는 가운데 홀로 살을 찌우고 있는 것이다. 수익률 또한 양호하다. 연초 이후 국내에 출시된 배당주 펀드는 평균 11.20%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배당 촉진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배당주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펀드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운용실적이 우수한 배당주 펀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가장 투자하기 좋은 증권사는 한국·미래에셋

증권사들 선호 종목 꼽아

증권사가 꼽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증권사는 어디일까.

최근 정부 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이 동종 업계로부터 최선호 종목으로 꼽혔다.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업종지수 중 이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업종지수는 증권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 지수는 지난달 말 1,542.78에서 지난 24일 1,730.50으로 12.2% 급등해 22개 업종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는 2002.21에서 2026.62로 올라 등락률이 1.2%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증권업 지수의 수익률이 코스피를 11%포인트나 웃돌았다.

최근 증권주 강세에 대해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형사를 필두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데 더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실적 개선과 정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주 가운데 가장 많은 증권사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이달 들어 리서치센터에서 증권주를 평가하는 리포트들을 발표한 증권사는 모두 7곳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3개사로부터 추천 종목으로 선별됐다.
한국금융지주는 KDB대우증권·KB투자증권·대신증권이,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증권·KB투자증권, 대신증권이 투자를 권했다. 한국금융지주의 경우 한국투자자산운용과 한국밸류자산운용 등 사회사의 선방이 투자 매력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시중 한 은행 영업창구에서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르나

보험사에 보험료 인상 자율권 인정

서민생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험사들의 보험료 결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개혁 제안과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반영해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지금도 보험사들이 손해율과 수익·영업전략 등에 따라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보험료 결정 과정에 개입해 왔다.

이런 관행 때문에 보험사들은 필요할 때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7000억원을 넘어섰다. 손해보험사들은 적자를 보지 않도록 보험료 조정

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율 등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조정에 대한 사전통제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수준(77%)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중소형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이보다도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어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앞
무등 정례식장 사이 7층 건물 사무나 건물

대지 96평 / 건평 570평

월수익 800만
주인직접 운영시 1,100만
현재성업중!

매가 11억 (보2억 용4억5)

나주 영강초교 앞
2층 상가

대지 205평 주택 1층 100평(전용 70평)
주택 2층 80평(전용 60평)

매가 1억9천
월 보증금 2천 월 150만원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신축원룸매매 용봉지구

전대 상대 5분 르까프 매장 뒷
용봉지구 미래도 APT코너

룸21개 전방총용

1층상가 2칸, 4층 주택 옥탑 1개
엘레베이터 완비, 정남향, 전면 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11억8천 (보2억 용3억)

월수익 900만 (1년수익 1억1천)

010-6832-9700 062)512-8080

신축원룸매매 전대2분

신축 4층, 전대 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룸12개 1층 점포2개, 4층 주택

월수익 500만

매가 6억7천 (보4천 용1억2천)

- ▶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12개(1층 상가, 립 18개) 월수 800 매가 8억
- ▶ 신축 4층 원룸 매매 룸18개(4층 고급주택) 월수 800 매가 12억
- ▶ 전대 예술대 룸 10개 매가 4억 2천
- ▶ 원룸(3억~20억)더량 있습니다.

참신한 010-6670-9800 062)952-5584

상가매매 수익성상가

- ① 수원지구 상가매매3층 한솔빌딩(4층중 3층) 85평(신한은행 뒤,모아엘기아 상가앞) 매가3억5천(보3천 용2억5) (월수익 200만, 1년 2400만)
- ② 수원지구 상가 매매 3층(엠스타빌딩)(4층중 3층) 62평(롯데마트 옆 시 하남 공단 쪽) 매가 2억5천(보2천 월 150 용9천)
- ③ 첨단지구 상가매매2층(대상오션스파) (6층중 2층) 62평(부영APT) 매가1억7천(보1천 월70 용9천)
- ④ 나주시 상영동 2층 학원건물매매 매가1억9천(토지205평 건135평 용1억2천)
- ⑤ 북구 신안동 2층 상가주택매매 매가 4억2천(신안사거리 무등경기장 쪽)

- ① 쌍촌동원룸형 오피스텔매매(2층)운전석 1번 출구 2분, 울수리 전체세종 신규교체 임대완료,주인거주가능)
 - ①11평 매가3천4백(보200 월27 용1천)
 - ②12평 매가3천5백(보200 월30 용1천)
- ② 상무지구 오피스텔매매(3층 정면)한국은행 앞 상무지구 현대 APT) 30평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5천(용 6천가)**
- ③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매매48평(사무실인테리어 무료제공) 매가 1억5천 **할인가 → 1억2천** (즉시입주가능 사비없음)
- ④ 상무지구 오피스텔 매매(6층)
 - ①15평(수립)6층롯데마트 동쪽인근 위치매매가격 8천
 - ②10평(수립6층) 임대보증금 5백~38만원 매매가 5천만원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목포시 용해동APT 단지옆 전원주택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무화과 나무 식재됨

월 보증금 2천 월 110만원

주)수아 010-6832-9700 062)512-8080